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을 펴십시오.

바울같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에게도, 그를 험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극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평함으로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발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진 사람만 자기의 땅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을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울의 권위와 사도직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바울은 사실 그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더 공부해 가다보면, 바울은 그가 한 일에 대해 자랑하도록 강요된 것을 봅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과 그의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하여 마지못해 그의 사역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통신 수단에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걸어 지금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자들이 돌아다니니 조심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사역들 뿐 아니라 가짜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양떼들을 떼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항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떼들을 탈취하려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양떼들을 먹이려는 참된 목자들도 항상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참 목자들이 있었지만 또한 가짜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이나 전도 사역 등을 하러 새로운 지방으로 갈 때에는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역자가 집회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하는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선 그의 사역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회 전도사들은 추천서나 위임장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의 시작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편지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들로부터 갖고 와야 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고린도에서의 나의 사역을 확인하는 너희들의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2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바라.**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삶과 너희들의 성령 안에서의 삶이 곧 나의 사역의 추천서니라. 그것이 나의 사역을 증명하도다.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들이 증거요, 증인이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16) 거짓 선지자들에 관하여 하신 경고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훌륭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심하게 비판적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역을 열매로 평가한다면,

그 사역의 열매로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너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증거요,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삶, 성령 안에서 너희의 행함, 사역의 증거로서 오직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다.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곳이 바로 진정한 사역이 되고 있는 곳이며 사역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곳입니다.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라.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은 성령님께서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같이 생각하여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 정기 간행물을 보면 성공적인 사역 세미나에 대해 미국 전역에 걸쳐 열리고 있는 광고로 꽉 차 있습니다. “방법론” 세미나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본 것 하나는, “당신의 교회를 6주안에 30명에서 300명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관심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400 달러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방법을 배워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방법”에 대한 세미나가 전국에 열리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세미나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행하신 것에 대해 내가 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항상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곳 우리의 사역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비밀도 아니요, 어떤 기술도 아니요, 어떤 능력도 아니요, 또한 어떤 특수한 재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이 새 언약의 능력있는 일꾼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이것은 율법을 말함)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출애굽기 19:5절),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계명들을 지키고 거기에 기록된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임할 축복들을 선언하셨고 또 그들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26:9절), 한 쪽은 에발 산이고 다른 쪽은 그리심 산이 있는 세겜 지방으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얼마는 한쪽 산에 서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쪽 산에 서고, 백성들은 아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에발 산에서는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을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들을 선언했고, 그리심 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임할 축복들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군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것은 법문, 즉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종 바울이 말한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독한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법문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지 당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나타내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그 법문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여 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율법(신명기 27:26) 그 자체가 말하기를, 율법 전체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규칙과 규정과 율법을 지키므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문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언약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 32장),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에 가까이 다다르자, 진중에서 소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뭔가 못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에 가까이 오자 백성들이 금상 주위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신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바로 이 첫 두 계명을 벌써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땅에다 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진에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 전체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즉시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첫 번째 두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들을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모세에게 백성들이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한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죽음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여 죽게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문(법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이것은 죽음으로 정죄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출애굽기 34장 29-35절) 내려왔을 때 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을 가진 이 율법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그들은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영구적인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 언약, 즉 신약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은혜와 자비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없어져 버릴 이 옛 언약도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8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다른 말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서로 비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의 영광스러움! 성령님의 내재하심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스러움! 그것은 옛 언약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이 새 언약의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인해 옛 언약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 언약도 영광스러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이 새 언약의 영광과는 아무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이 얼마나 최고의 영광입니까?

11 없어질 것도(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덜’과 ‘더’의 논증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용어색인(concordance) 책을 가지고 이 ‘덜’과 ‘더’의 논증을 모두 적어 보기를 권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로마서 8:32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가 어찌 (더욱)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특히 로마서에 있는 이 ‘더욱(much more)’은 참으로 중대한 공부입니다. 바울이 이 ‘더욱’의 논증을 자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는 이 두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 그것은 죽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옛 언약이 영광이 있었다면, 생명을 주는 언약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갖는 이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12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구원과 구속의 소망을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세처럼 아니하고, 담대함과 명백한 말로 명확하게 또는 담대하게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린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으므로 인해 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를 그들이 볼 수 없도록 수건으로 가렸고, 그래서 그들은 광채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채가 사라져 없어졌다는 사실은, 단지 옛 언약이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대체하실 때 옛 언약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얼굴에 있는 광채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4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것은 이 수건을 말합니다)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에 가려져 없어지는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이 같은 수건이 오늘날도 그들의 얼굴 위에 가려져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이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구약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알기 쉽고, 너무나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합니다! 주님은 그의 초림 때에 메시아에 대한 300개가 넘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수건이 그들의 얼굴에 가리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며 비극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25절에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blindness)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한복음 5:39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있는 이스라엘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blindness)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수건이 제거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가장 담대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훌륭한 증인들이 됩니다. 그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갑자기 구약이 선명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성경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건이 그들의 얼굴에 가려져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때 그 수건은 벗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명백하고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게 됩니다!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바울은 안식일 마다 회당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오늘까지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 서신을 약 60AD에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현재도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인 지금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만일 당신이 무신론자이거나, 불교 신자이거나, 모슬렘이면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기독교인들에게만 시민권을 거부합니다. 그 수건이 아직도 그들의 얼굴에 가려져 있고,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이스라엘 국회에 종교를 바꾸도록 하는 어떤 출판물이나 전도지를 배부만 해도 투옥 하도록 하는 법을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발의된 법은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가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소책자를 배부하기 시작했다면 일 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탄나휴 수상이 이 법을 통과하게 하거나 법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여 맞서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영사관 등에 나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하기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이 완고하게 닫힌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증거들을 고려하지도, 받아드리지도 아니합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유대인을 보면 그 수건이 벗겨진 것을 봅니다. 이사야 66:8절과 로마서 11:26-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이 완악함이 제거될 때에는 이스라엘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그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암시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휴거로 데려 가신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제거될 것이고 예수께서 진실로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때가 임박했다고 봅니다. 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스러운 절정의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은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빠를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곧 다 성취되어질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잘못 사용되고 또 잘못 해석되는 성경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나는 아주 감정적인 집회에 갔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통로를 위 아래로 돌아다니고 굴러다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나는 그곳의 목사에게 무질서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치광이가 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율법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에(사도행전 15장)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그들을 율법 아래 두려고 하는가? 그는 그것을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명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1-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죽음의 직분인 율법과 살리는 영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살리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정죄만하는 율법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유대인들과 같이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의 사귄은 끊어 졌으며, 사람은 이 신령한 형상에서부터 타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속에 대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려 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런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32절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됩니다. 수건 없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시키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4:11-16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교회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역들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조각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씩 깎아내고 다듬으시는 한 덩어리의 대리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을 때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깎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따라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물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의 하나이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고하여 저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되어 집니다. 이사야 64:8절, 예레미야 18:1-6절, 로마서 9:21절에서 모두 하나님을, 진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과 형상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멋진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예레미야 18:1-6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진흙을 가지고 물레들 위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흙을 가지고 다시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물레들 위에 다시 얹어서 그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로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손에서 파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됩니까? 가공되지 않은 딱딱한 한 덩이로 인해 그렇게 됩니다. 때때로 토기장이의 일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파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딱히 굳어져 있어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반죽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기까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완성된 작품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3: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고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는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이나,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수건이 있다면 제거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시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른 것에 맞추고 있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러한 혼란시키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의 교제 가운데 영광의 더 높은 단계 위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